

3년간 선박사고 사망 33명 '구명조끼 미착용'

전체 사망·실종자 38명 중 대다수... 86.8% 차지 어선 관광객 늘고 이상기상 빈번해 사고 요주의 내달 1일부터 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선박사고의 승선원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1547건이다. 2023년 451건, 2024년 451건, 2025년 645건 등이다. 같은 기간 선박사고 사망·실종

자 수는 38명이다. 이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33명(86.8%)에 달한다. 나머지 5명은 실종자를 포함한 사람의 수다. 이처럼 선박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주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또 여름철 낚시어선 관광객 증가

와 더불어 이상기상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된 어선 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낚시를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포인트로 이동할 때, 선실에 대기할 때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

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은 구명조끼 착용과 더불어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등록된 낚시어선 이용 >승선정원 준수 >선내 음주 금지 >출항 전 비상장비 확인 >사고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식당 비닐하우스에서 불 20분 만 진화... 인명피해 없어

제주시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분쯤 제주시 도련1동의 한 식당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창고용 비닐하우스 26.4㎡와 냉동창고 외벽 3.3㎡, 냉장고 등을 태워 599만5000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곳을 지나가던 한 운전자가 '핑' 소리와 함께 화염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조사·펌프·탱크·구급 등 소방차 10대, 소방대원 13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불은 이날 오전 1시 29분쯤에 진화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차별철폐대행진 공동기획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제주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유리기자

"혐오·차별 철폐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20일 제주시청-문예회관에서 제주차별철폐대행진

불평등을 양산하는 차별의 철폐와 함께 연대를 외치는 차별철폐대행진이 제주에서 열린다. 2026 제주차별철폐대행진 공동기획단은 15일 오전 제주시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차별 철폐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제주 공동체를 위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차별철폐대행진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제주시청 일대에서 열

리는다. 제주시청에서 출발해 광양사거리, 문예회관 등 약 3.1km 거리를 1시간 동안 도보로 걷는다. 오후 2-4시에는 무대 공연과 참여형 버스 프로그램 등 제주차별철폐마당이 열린다. 공동기획단 관계자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된다는 차별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자, 농민,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함께 일상을 보내는 모든 존재들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행진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구호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장애인·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성혐오에 저항·성평등 사회 실현 >성소수자 차별·혐오에 저항 >장애인이 존엄한 권리 주체로서 사회참여 실현 사회 등을 내세웠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드론 출현에 항공기 운항 중단 소동

공항 인근서 미승인 드론 감지 경찰, 40대 A씨 검거·조사 중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서 미확인 드론이 발견돼 10여분 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공항 서쪽 3km 부근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이 물체는 제주공항운영센터 종합상황실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됐고 112에 신고됐다. 당시 제주공항은 활주로를 폐쇄해 이날 오후 4시 41분부터 53분까지 12분간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했다가 이후 운항을 재개했다. 경찰은 이날 공항에서 5~6km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드론

을 낚린 40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드론은 사전에 허가받아 비행한 드론이었으나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제주공항의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주공항 중심 반경 9.3km 이내인 관제권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된 사례는 모두 57건으로, 최근 일주일에만 5건에 달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동북리 LNG발전소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동서발전(주), 최근 건설사업 시행 승인 신청 제주환경운동연합·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성명

한국동서발전(주)이 제주도에 동북리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는 15일 성명을 내고 "동서발전 가스발전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사업시행 승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추진하며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에 약 150MW 규모의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아크는 "중점평가항목인 '대기질 평가'에서 수소 혼소 운전 시 대기오염 영향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월 15일까지 사업시행 승인 관련 서류 열람과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 평가서를 근거로 한 사업시행 승인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스과 수소를 혼합해 태

울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예측, 평가, 저감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수소 혼소 조건 반영한 대기질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제주도는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 및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사업은 최종 관문인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을 뿐, 새 도정이 개발행위 허가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NG 발전소 사업 부지인 옛 채석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종료 후 자연 복구 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이곳을 온실가스 배출 시설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편법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